

흥겨운 노래 맛있는 공양에 어깨춤 들썩~

9월 16일 오전 충북 청원군 남이면사무소 복지관 앞마당에서 열린 석문사(주지혜전) 주최 '지역 어르신 초청 위안잔치'.

말쭙한 정장차림에 '참된 삶 실천운동본부'라는 어깨띠를 두른 이광래 거사가 속속 모여드는 어르신들을 잔치상으로 안내한다. 똑같은 어깨띠를 두른 젊은이들과 불자들은 음식을 나르느라 분주하다. '부루나 합창단'이라고 새겨진 진한 주홍색 앞치마를 두른 보살들도 잔치상과 주방을 오가며 부지런히 움직인다.

500여 자리가 활짝 열리고 시작된 위안잔치. 부루나 합창단 단원들이 어느새 앞치마를 벗고 깔끔한 합창단복으로 갈아입은 채 행사장 앞에 자리했다.

위안잔치가 시작되고 합창단은 '지계의 노래'에 이어 유영가인 '내가'와 '어머니'를 합창해 흥을 돋웠다.

석문사 주최 '어르신 위안잔치'는 이번이 세 번째로 충북지역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열린다. 그만큼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러 오고 있다. 이번에는 많은 지역 신행단체들이 봉사해 주었다. 주회 측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자발적인 의지에서다.

부루나 합창단도 그 중 한 곳이다. 부루나 합창단(단장 노금자)은 율곡사, 관음사, 보문정사, 명장사, 풍주사, 평화사 등 청주 지역 6개 사찰과 청원 혜은사 합창단, 그리고 태고종 연합 연꽃합창단 등 8개 합창단 불자들이 가운데 55세 미만의 불자들이 구성된 '불음포교신행단체'이다.

지난해 창립 때 올해 4월 창단연주를 가진 부루나 합창단은 큰 포교를 위해 인근 군부대 순례 행사에 참가했으며, 이번 경로잔치에 이어 복지시설과 소외지역에서의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공식행사가 끝나고 여흥시간이 이어지자 부루나 합창단원들은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 수발하기에 나섰다. 노금자



청원 석문사 '지역어르신 초청 위안잔치' 현장

부루나합창단 등 지역 신행단체 동참 500여 어르신 위로하며 '신행교류'

(60) 단장은 어르신들 속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며 불편한 점을 살피고, 감사를 받고 있는 이영숙(49)보살과 총무를 맡고 있는 김성자(49) 보살은 주방에서 음식 준비에 일손을 보탤다.

"부루나 합창단뿐만 아니라 지역 복지관과 봉사단체에 소속돼 있는 회원들이 많아요. 아학 교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모두 열심히 신행을 하고 있어요."

명장사 합창단장이기도 한 이영숙 보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김성자 보살은 "불교합창단을 알려서 우리 지역 불교를 발전시키는 게 우리 목표"라며 자원봉사를 온 뜻을 설명했다.

같은 시간, 청주 관음사 거사리합창단 심재훈(52) 거사는 행사장 한쪽에 '간이 미용실'을 차려놓고 어르신들의 머리를 깎느라 정신이 없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연합회 봉사단 회장을 맡고 있는 심 거사는 불자 봉사단원들과 함께 세 번의 경로잔치에 모두 참석해 봉사했다.

청주 중앙공원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불

교단체 '봉우회' 회장 이주원(77) 거사는 5명의 봉우회 회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음료수를 나르며 일손을 거든다. 충북불교대학 12기 회장인 조보행(53) 거사는 "우리 대학에서도 8명이 봉사를 하러 나왔다"며 음식집시를 나른다.

여흥분위가 무르익어갈 무렵, 이광래 거사가 안전사고에 대비해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살피기 시작했다. 이 거사는 경로잔치를 연 석문사의 봉사단체인 '참된 삶 실천운동본부 자원' 본부장, 공무원인 이 거사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자원봉사에는 결코 빠지는 법이 없다.

석문사 자원원은 한 달에 한 번꼴로 교도소와 소년원, 군부대 등을 다니며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원의 대표적인 신행단체. 오는 10월 청주교도소에서 독경대회를 개최하고, 연천의 한 군부대에서 위령제를 계획하고 있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전정환(25)·진미정(25)씨는 자원회원이자 학교선배인 손영숙(27)씨의 권유로 자원봉사를 왔다. 전씨와 진씨는 "해전 스님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도와드리고 싶었다는 생각으로 오게 됐다"며 웃는다.

행사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석문사 주지혜전 스님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자원봉사들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치마가 너무 예쁘네요."

해전 스님의 말에 부루나 합창단 노금자 단장은 "저희들이 스님께 감사하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당연히 저희가 나서야죠"라며 답례를 한다.

석문사 경로잔치는 3회째를 맞으면서 이번에는 지역 불자들의 '신행 마당'으로 자리 잡았다. 서로 도우면서 지역불교를 일궈보겠다는 불자들의 팍팍함이 청주·청원 불교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글·사진/청원=한명우 기자

체력·신심 다진 '화합 한마당' 충남북 운불련 체육대회 개최

충남북 7개 지역 운불련연합회 연합 체육대회가 9월 17일 충주 시민체육공원에서 열렸다(사진).

대전·천안·공주·부여·논산·청주·충주 7개 지역 운불련 회원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체육대회는 축구, 족구, 줄다리기, 계주 등으로 진행됐



이전 연합체육대회는 충남북 운불련 단

체장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모여 충청 운불련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연합체육대회를 통해 지역 운불련 간 친목을 다지고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에 이르렀다.

체육대회를 주관한 청주 운불련 박창순 회장은 "첫 행사임에도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며 "충청지역 운불련 단체들은 연합체육대회를 계속 유지하면서 충청 운불련 발전을 위한 교량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월정사서 6주년 기념법회 공불련, 암자순례도

전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9월30-10월1일 이틀간 오대산 월정사에서 창립 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기념법회는 첫날 월정사 불교문화축제 관람, 월정사 전나무숲길 삼보일배와 6주년 기념법회, 상원사-종대-적멸보궁을 돌아보는 암자순례 등으로 진행된다.

일터가 도량입니다

모든 일의 핵심코드 '가족처럼'

서울 양천구 신정 1동 서원수 동장

70대 어르신 두 명이 서울 양천구 신정 1동 동사무소 앞에 차를 주차시키자 서원수 동장이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는 동사무소 4층 탁구장으로 안내한다. 그 사이에 9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동장과 면담하기 위해 동장실로 들어간다. 동장이 없어도 동장실은 누구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올해 2월 신정 1동 동장으로 부임한 양천구청 불심회 회장 서원수(56) 동장은 부침한 봉사정신으로 무장한 자타가 인정하는 '진짜' 공무원이다. 확고한 국가관과 공무원관을 바탕으로 주민편의를 평생의 업으로 여기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서 동장의 신정 1동 운영방침은 '모

구 '스타'가 됐다.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복입니다. 저는 이게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편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 동장이 불교에 입문한 것은 17년 전. 깨끗한 마음·배우는 마음을 강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았다는 서 동장은 8년째 양천구청 불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구청 불자회 발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집단이주입니다. 이럴 때는 항상



서원수 동장(오른쪽)이 직원과 업무를 논의하고 있다.

두가 가족처럼'이다.

주민들은 물론이고 동사무소 직원들 역시 가족처럼 대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오전에 한 시간씩 주민등록 등·초본을 직접 발급해주며 '가족'을 나눈다. 올 여름 수해 때에는 주민들과 뜻을 모아 평창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도 펼쳤다.

무슨 일이든 주민들과 함께 웃고 울며 고민하는 서 동장에게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다. 양천구청 재난관리계장 시절인 2004년, 서 동장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문구를 넣은 부채를 제작해 양천구 관내 지하철 구간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나눠주며 안전생활을 습관화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 세일(Sale) 행사'로 언론에 보도됐고, 서 동장은 양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부처님께 서도 믿음하셨듯이 누구에게나 평등하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요."

이제는 문화와 복지가 대민서비스의 핵심코드라고 강조하는 서 동장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 삶의 질을 끌어 올릴 각오다.

"고객감동, 고객감동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감동만으로는 안 됩니다. 감성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불교를 잘 모른다며 겸손해하는 서 동장. 하지만 서 동장은 말없이 부처님 법을 실천하면서 오늘날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글·사진=한명우 기자

조계종출판사가 불교출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습니다.

간화선
· 값 15,000원

불교입문
· 값 7,000원

간화선 입문
· 값 8,000원

절 수행 입문
· 값 6,000원

한글통일법요집
● 천도·다비의식집
· 값 12,000원

한글통일법요집
● 상용의식집
· 값 16,000원

반야심경
· 값 7,000원

천수경
· 값 8,000원

신도교육 교재
『불교입문』 값 7,000원
『불교의 이해와 신행』 값 9,000원
『불교사의 이해』 값 9,000원
『불교문화』 값 9,000원

지도자 지침서
『포교방법론』 값 12,000원
『포교방법론2』 값 8,000원
『불교상담』 값 10,000원

수행
『간화선-조계종 수행의 길』 값 15,000원
『간화선 입문』 값 8,000원
『절 수행 입문』 값 6,000원
『수행법 연구』 값 25,000원

법요집
『한글통일법요집1-천도·다비의식집』 값 12,000원
『한글통일법요집2-상용의식집』 값 16,000원

경전 시리즈
『예불문』 값 6,000원
『반야심경』 값 7,000원
『천수경』 값 8,000원

불교 경전
『이항경』 값 15,000원
『화엄경현담·주해집』 값 140,000원
『법지』 값 20,000원

승가대학 교재
『사장』 완성판 값 20,000원
『절요』 완성판 값 10,000원
『도서』 시험판 값 10,000원
『선요』 시험판 값 10,000원

불교 일반
『조계종사교·종세론』 값 15,000원
『조계종사교·현대론』 값 13,000원
『백천근에서 한 걸음 더』 값 20,000원
『불교 명구 모음집』 값 25,000원
『침묵이 아니면 진리불』 값 8,000원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 값 10,000원
『포교사교시(예)상문제집』 값 8,000원
『불교상식』 값 4,000원
『불교 첫걸음』 값 2,000원
『아름다운 인연 불교를 찾아서』 값 2,000원

어린이·청소년
『고추잠자리』 값 6,000원
『물, 뱀이 마시면 독 스카 마시면 우유』 값 6,500원
『빨리 가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거야』 값 7,500원
『대지유인 선사』 값 7,000원
『너에게 나무, 나에게 부처님』 값 8,000원

영문
『WHAT IS KOREAN BUDDHISM』 값 20,000원
『GUIDE to KOREAN BUDDHIST TEMPLES』 값 7,000원

■ 문의 | 조계종출판사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번지 통일빌딩 8층 | 전화 (02)733-6390 | 팩스 (02)720-6019